

문화특종

정읍시 관광지 조성사업 기공

총 사업비 304억원 투입... 가요박물관·한식체험관 등 2018년 12월 준공 예정

김제성덕면 양경철씨, 어버이날 기념행사서 도지사 표창 영예



김제시 성덕면 양경철(사진)씨가 11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김제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서 회생과 봉사정신을 실천하여 성덕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지사표창을 받았다.

양경철씨는 성덕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주민을 위해 일을 하며 면의 대소사에 앞장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또한 어머니를 모시며 웃음을 도맡아하고 경로효친상을 실천하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에 대해 해마다 꾸준히 봉사를 해왔다. 금년 겨울에는 주민자치위원들과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어르신들의 생활상을 들어드리며 어려운 이웃에게 떡을 전달하였고, 장사시신을 짊어주는 '움직이는 행복시진관' 사업을 통해 상반기 188명이 장사시신을 촬영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양경철씨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중 하나일 뿐이다"면서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과한 상을 받은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고구마재배 기계화 연시회 개최 사용방법 등 소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지난 10일 백산면에서 고구마재배 농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생력기계화 연시회를 열어 새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 및 작업기의 사용방법 등을 소개하였고, "2019년까지 기계화율을 70%로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구마 생력기계화 연시회에서는 고구마 묘를 심고 바로 피복할 수 있는 기계 4기종, 그리고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운 후 고구마 묘를 심는 기계 4기종에 대한 작업방법을 보여줬다. 또한 고구마 줄기를 파쇄하는 기계 및 수확용 기계 7기종을 전시하는 등 고구마 재배의 전 과정 기계화와 관련된 농기계를 선보이면서 그 활용방법을 보여줘 고구마 재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백산면 김동철농가는 지난해 120ha의 면적에 자체 생산한 무병묘 고구마를 농기계로 재배한 결과, 벼 재배에 비해 1.5배이상 높은 소득을 올렸고 올해는 150ha로 확대재배를 계획하고 있다며 연시회장을 참석해 고구마 생력기계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농기센터-농진청 원예특작원 현장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시 제2청사에서 지난 10일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와원예과 현장공동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작물보호분야와 신선농산물 수출분야에 대해 1년간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양 기관에 따르면 작물보호 분야 연구는 시설채소 선충 피해 경감을 위한 친환경 혼작재배기술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시설채소농가에서 토마토와 멜론 등의 선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방제가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메리골드를 이용한 선충의 방제효과와 메리골드 식재에 따른 작물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세계질 체류형 관광지 정읍의 핵심 기반이 될 백제가요 정읍시 관광지(이하 정읍시 관광지조성사업)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11일 사업현장 인근 신성동 정해마을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생기시장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신한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도의회 이학수·장학수의원,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장파 한국가요가창교육전문원장 작곡가 이호섭씨,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시 관광지 조성사업은 신성동 용산동 일원(정해마을 중심) 21만5천 808㎡(약 6만5천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304억원(국비 94, 시비 200, 민간투자 0)을 투입해 문화·역사체험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백제가요인

정읍시(井邑詞)의 실화와 정해마을 관광자원인 새암유물 그리고 부부나 무 등의 자원을 활용해 행사 나간 남편의 인위를 격정하는 부부사랑을 주제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 한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문화자원과 역사·자연을 접목함으로써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정읍' 또는 '빛가람정읍'이라고도 불리는 우리의 전통가악곡인 수제현의 역사와 정읍시 설화 속의 사랑 이야기 등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정읍시 가요박물관(이하 가요박물관)'을 비롯 한식체험관, 저자거리, 정읍시 여인집 등이 들어선다.

또 수제현원과 석가장원 등의 '경관정원'과 생태연못, 누각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중 특히 가요박물관은 각 나라와 시대별 사랑가요에 대한 내용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박물관으로서 의미가 크다.

시는 "방송매체의 가요 전문가 등과 연계해 관람객과 양방 향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고 인근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 등과도 연계해 세계질 체류형 명품관광도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생기시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제가요정읍시 관광지 조성이 완료되면 단풍령수인 내장산은 물론 체류형 관광휴양시설인 내장산리조트와 신성동 일원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와 역사·자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대표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에서 14일과 28일 '야(野)한 야(夜)시장'을 운영하고 이와 별개로 신태인전통시장은 13일 오후 2시 신태인시장 광장 특설무대에서 문화공연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정읍전통시장 5월 문화공연 '풍성'

샘고을·신태인전통시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정읍지역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문화공연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먼저, 정읍의 대표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에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야(野)한 야(夜)시장'을 이달에도 운영한다.

이 행사는 시장 내 다목적광장을 중심으로 매일 물레와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리는 것으로 다양한 먹을거리와 공예품, 문화상품 등을 판매하고 가요와 댄스, 악기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친다.

이달에는 14일과 28일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아시안 방목객 축서노래

자랑과 상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푸짐한 경품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신태인전통시장은 13일 오후 2시 신태인시장 광장 특설무대에서 문화공연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방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에서는 전주MBC 김치통의 사외로 김영인과 현진우, 김수환 등 초청가수 공연과 함께 세타기 TV, 자전거 등을 내건 푸짐한 경품행사가 이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날 행사에는 이정희전도교 교령과 정정숙 전도교 교화관장을 비롯한 천도교인, 김생기시장, 우천규시의회의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과 이갑상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유족 등이 참석했다.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식

정읍덕천면에서 천도교 중앙총부 122주년 맞아

제122주년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 기념식이 기념행사와 함께 지난 11일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갑오 동학혁명기념탑에서 열렸다.

천도교 중앙총부(교령 이정희)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정희 천도교 교령과 정정숙 천도교 교화관장을 비롯한 천도교인, 김생기시장, 우천규시의회의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과 이갑상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교회 의식에 이어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 개혁안 낭독, 기념사와 축사, 동학행진곡 합창,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식 후에는 기념공연으로 용단무가 펼쳐져 혁명군들의 혼을 기렸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제122주년 황토현전승기념일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후손들 도리를 다 할 것을 약속하는 엄숙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위대한 역사의 흔적이 서려 있는 정읍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동학 선양사업을 추진해왔고, 동학의 후예인 천도교의 유대 역시 오래전부터 유지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모악산축제 안전점검

김제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금산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가 안전한 축제, 다시 찾는 축제를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준비를 통해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구제역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해 더욱이 예민해진 시점에서 3년 만에 열리는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김제시에서는 D-30일을 앞둔 지난 4월 20일,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5월 11일에는 이승복 부시장 주관으로 시 관계자, 경찰서, 소방서, KT 등 안전 유관기관과의 사전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19일에는 황배연 안전개발국장 주관으로 합동안전점검을 현지에서

실시하여 행사장 무대 및 관중석, 가스 전기 등 안전 저해요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개막에 앞서 옥외행사장소 및 시설물 안전 총괄책임자를 임명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관광객 행사 진행요원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리고 이동과출소, 소방차 등 응급지원 등 행정·경찰·소방기관과 연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행사장 주변에는 질서유지 및 돌발사태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축제 진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모악산, 신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4대 종단과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모악산이 '김제의 산', '어머니의 산'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를 새로이 접목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없음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광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병주
Premium Chdi Wine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정병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375ml 2ea/13%

TEL : 063-564-9900
www.gansanwine.com